

광주 여성의 생산활동 : 1950년대 중반부터 1990년 말을 중심으로*

서 선 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Women's Work in Kwangju from the Middle of 1950's to the End of 1990's

Sun-Hee Suh[†]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oth to describe and to explain the shapes and the changes of Kwangju women's productive activities from the middle of 1950's to the end of 1990's. Productive activities in this study include wage labors as well as economic activities in informal labor sector and domestic labor. Three factors - economic structure, the family, and women's consciousness - are drawn to explain women's work in Kwangju.

The period from the middle of 1950's to the end of 1990's has been divided into 5 sta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work at each stage are as follows : Kwangju women during 1950's worked hard and contributed to the family economy not only inside but also outside the family; during the second stage from 1960's to 1970's, they accomplished not only the traditional women's role but also industrial wage worker; the third period of the first half of 1980's was the time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sciousness; the fourth period from the end of 1980's to the beginning of 1990's was the time when women tried to solve their problems by themselves; during the last period from the middle of 1990's to the end of 1990's, Kwangju women wanted to establish their identities in the independent area from their families.

Key Words : productive activities, family, domestic labour, kwangju, economic structure, women's consciousness

* 본 연구는 광주여성 발전사(광주광역시, 2000)에 수록된 "광주 여성의 역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

Jinwol-dong, Seo-ku, Kwangju, 503-703, Korea

Tel : 062-670-2359, Fax : 062-670-2180

E-mail : Sunhee@kwangju.ac.kr

1. 서론

전통 사회에서 일은 피지배계층이나 하는 힘겨운 삶의 상징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일은 대단히 많은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일은 개인의 수입이나 지위는 물론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까지도 결정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일의 의미가 여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결혼과 가족을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여성들의 일, 즉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전쟁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광주 여성들의 생산활동의 형태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활동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말한다. 임금노동은 생산활동의 가장 대표적 노동이다. 그러나 생산활동은 임금을 받는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학자들(Zaretsky, 1976; Secombe, 1975; Beneria, 1978)이 이미 지적했듯이 임금이 지불되지 않지만 가사노동도 생산활동이며, 비공식 영역에서의 돈을 버는 일도 생산활동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쟁 이후부터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공식 영역 및 비공식 영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의 참여 형태와 변화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광주 여성의 일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광주 여성의 생산활동의 형태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형태와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 시대에서의 광주여성의 활동을 특정한 형태로 모양지운 조건들을 찾아내어 여성활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성학자와 가족학자에 의하면 여성의 생산활동은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사회의 경제구조와 가족에 의해서 결정된다(Oppenheimer, 1970; Sokoloff, 1980; Tilly 1978). 경제구조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요인(demand factor)으로서 여성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의 여성의 삶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서 암시되듯이, 가족은 여성을 생산활동으로 밀어내는 공급요인(supply factor)으로서 여성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도 광주의 경제구조와 가족의 특성을 사용하여 광주 여성의 생산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여성의 생산활동을 경제구조와 가족의 측면에서만 설명하는 것은 구조 결정론적 발상이다. 여성 외부의 조건이 여성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삶은 여성 밖의 조건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여성의 삶에는 여성 스스로가 결정해 가는 측면도 있다.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여성 의지가 그것이며, 이를 여성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제구조와 가족이 여성의 활동을 결정지워 가는 방향을 추적함과 동시에 각 시대의 여성의식이 어떠하였으며, 어떻게 여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분석이 방법론이 될 것이며 기존의 관련된 문헌,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인터뷰에 의한 사례가 분석의 자료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간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이다. 이 기간은 광주여성의 임금노동에의 진출 정도와 여성의식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다섯 단계 -- 1) 1950년대, 2) 1960년대-1970년대, 3) 1980년대 초반-1980년대 중반, 4)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그리고 5) 1990년대 중반-1990년대 말 -- 로 나뉘어서 분석된다.

1. 1950년대

1) 광주 여성의 가족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삶은 가족 중심적이었다. 한국인들은 개인보다는 가족을 더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개체적 삶으로서의 '나'의 삶과 집단적 삶으로서의 가족의 삶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

나”(최봉영, 1993: 55)인 관계로 인식되어 개인의 실현이 자기 가족의 복지와 안녕을 증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족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은 삶의 목표이며 행동의 동인이었다. 여성은 그러한 경향이 남성보다 더 강하였다. 조선은 가부장적 사회였고,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을 실현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는 가족이 유일하였다¹⁾. 한국인 일반이 그러했지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자신과 가족을 동일시하며 가족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동인이 되는 가족 중심적 삶을 살아왔다.

호남권의 일부로서 광주는 유교의 영향이 컸었는데, 유교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중의 하나가 유교적 부덕(婦德)이다. 유교적 부덕의 핵심은 '살림'을 잘 하는 것이다. 살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영역에 관련된 행위들을 포함한다. 그 하나는 식구들의 육체적 요구를 해결해주는 것과 관련된 행위들로 집안 식구들의 밥상을 차려내고 입성을 챙기며 잠자리를 갖추어주는 것, 즉 가족원의 일상적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살림의 또 다른 영역은 집안을 관리하는 것, 즉 “물길을 터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가정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최봉영, 1993: 45)이다. 이것은 “가(家)에 있어서 주장(主張)에 관한 것, 출입과 빈객(賓客)에 관한 것, 부모와 며느리와외의 관계에 관한 것, 가옥의 구조와 의례에 관한 것, 가정의 연회(宴會)에 관한 것, ... 출산과 자녀양육에 관한 것, 노복(奴僕)을 부리는 것에 관한 것”(최봉영, 1993: 47)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조선 시대의 가족 개념은 나와 나의 조상 그리고 후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최재석, 1966; 최봉영, 1993), 살림의 대상도 핵가족 성원만

이 아닌 핵가족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친족들(죽은 사람까지도)을 포함한다. 나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의 상하좌우에 있는 가족원들을 거두고 관리하는 것이 살림이었다.

유교적 부덕은 살림의 방법론도 포함한다. 살림을 하되 '부덕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덕스럽다는 것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음(陰)적인 특성이 배어있는 방식, 즉 앞에 나서지 않지만 헌신적이고 순종적이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행동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부덕은 단지 음적인 특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여성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부과되는 유교의 보편적 행동 수칙인 절개와 지조 또한 요구되었다. 불의에 굽히지 않고, 정도(正道)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덕이란 부드럽하면서도 강인하고, 순종적이면서도 지혜로우며, 앞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옳은 것은 끝까지 관찰하는 행동양식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덕은 사림의 영향이 깊은 광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기동일시에 기초하여 내 식구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정리하고 관리하되 자기를 부정하는 자세로 그러면서도 절개와 지조를 굽히지 않는 방식으로 집안을 꾸려나가는 행동양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광주 여성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조선 사회의 붕괴 이후, 해방과 전쟁, 그리고 전쟁 후의 혼란을 겪으면서 사회구조가 바뀌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의 가치관까지 바꾸어버릴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50년대 광주는 농업이 주도적인 산업구조 아래서 동족마을 중심의 생활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다²⁾. 전체적으로 볼 때 '50년대 광주의 일상생활은 전통적이었으며, 광주 여성의 삶도 그러하였다. 가족을 위하고 부덕을 실현하는 것이 여성의 삶의 목표였다. 이러한 전통의 지속은 광주 여성의 행동의 범위를 가족 안으로

1) 조 혜정(1988: 78-81)을 참고할 것. 전통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이 낳은 자식, 특히 아들을 중심으로 심리적, 비공식적 가족을 형성하여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의 생존과 성취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성의 삶에 가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다.

2) 고헌경 외의 연구(1963)는 60년대까지도 한국 사회의 전반에 동족마을의 영향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제한시켰다. 여성의 삶의 목표는 부덕의 실현이라는 인식 하에서는 여성이 해야 할 일은 살림이며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 되기 때문에, 가정 밖의 활동은 여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족 중심주의는 광주 여성의 활동을 가족 안으로 제한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여성이 가족 밖에서 일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전후의 어려운 경제로 인해 생존이 위협을 받는 가족들이 드물지 않았다.

2) 광주 경제와 가계경제

'50년대 광주는 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과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주산업인 농업은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영세한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가구당 평균 경작토지의 면적이 1정보를 넘지 못하는 소농경영이었으며, 여기에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따른 저곡가 정책과 과중한 부채 등이 더해져서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하였다. 생산방식의 영세성은 공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세한 경공업이 공업의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양적으로 많지도 않았다. 더구나 이 시기의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2·3차 산업의 비중과 1인당 소득이 낮은 전근대적이고 빈곤한 산업과 경제구조³⁾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광주에는 실업인구와 도시빈민이 넘

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과도한 잠재실업을 안고 있는 농촌지역이 있었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은 실생활에서는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더 나쁠 경우에는 하루 세끼를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운 가족들이 많았다. 그러나 전후의 어려운 광주 경제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남편 혼자 수입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연히 '50년대의 빈곤한 광주 가족들도 수입의 풀(pool)제를 생존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을 할 수 있는 가족원은 모두 일을 해서 가족 수입을 충당해야 했다.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구나 전쟁 후였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들이 전사하여 집에 주부양자로서의 남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내 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 식구 굶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빈곤한 여성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집 밖으로도 나와 일을 해야 했다. 가정과 살림이 여성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족의 존폐가 위태로울 때에는 가족 밖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일을 한 원인도 가족 때문이었다. 가족이 가정 밖에서 여성이 일을 한 동인이었다. 가족 제일주의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주의적 태도가 여성을 일하게 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3) 여성의 일과 의식

가) 경제활동

'50년대의 광주의 후진적 산업구조로 인해 농업 외의 공식 산업 분야에서의 노동력 수요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무급 가족노동자로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였고, 소수의 여성들이 영세한 공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일했다.

이렇게 공식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낮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상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신을 고용하였다. 이른바 비공식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집이나 집의 한 귀퉁이를 터서 만든 가게에서 샀

3) 다음의 표를 참고할 것.

도별 산업구조와 1인당 소득 현황

(1960년 현재)

	산업구조(%)			1인당 소득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금액(원)	지수(전국평균=100)
서울	2.0	26.8	71.2	20,700	218.3
충남	62.0	14.2	23.8	8,002	84.4
전남	64.1	9.9	26.0	6,961	73.4
경북	52.6	20.4	27.0	8,043	84.8
경남	39.4	25.1	35.5	8,747	92.2
전국	43.8	19.3	36.9	9,482	100.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1967년 12월호.

바느질을 하거나 거리 한 구석에서 팔죽장사나 국수 장사를 했다⁴⁾. 또한 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집에서 돼지나 닭을 키웠고 남의 집 빨래를 받아다 했다. 그렇게 하여 '50년대 광주 여성들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거나 가족 부양의 책임을 나누어 졌다.

집안에 남아 살림을 하는 여성들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전혀 무관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정의 여성들은 '소극적' 방법을 사용하여 가계의 수입을 늘렸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기." 또는 "무엇이든지 아끼기"가 그것이다. 이 시절의 남편들의 임금도 필요한 가족 생활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고 "남편들은 한번 돈을 갖다주고 난 후에는 죽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나몰라라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모자라는 임금으로 어떻게든지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다. 그들은 소비를 알뜰하게 함으로 돈이 나가는 구멍을 가능한 작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결혼한 보통 여성들은 남편의 떨어진 속옷 입기, 시장에 가서 최대한 물건값 깎기, 자신을 위한 비용은 거의 쓰지 않기 등등의 방식으로 소비를 아꼈다.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성들은 이렇게 소비를 알뜰하게 함으로 가족 경제에 기여했다.

가족 안팎에서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는 사회에서나 가정 안 모두에서 매우 낮았다. 여성이 자신의 기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은 여성의 일에 대한 일반 인식 때문이다. 이 시기의 여성의 노동은 모두 집안 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집안 일은 경제활동이 아니었다. 여성의 일은 집안 일이지 가게 부양이 아니라고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게 부양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집안 일의 연장으로 인식되었다. 여성의 임금 노동은 살림을 위한 부업이었고, 비공식 노동은 살림의 연장이었으며, 가사노동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고 여자라면 당연히 하는 일 이어서 돈과는 거리가 먼 활동이었다. 형태와 관계없이 여성이 하는 노동은 모두 가족을 위한 일, 즉 살림이었고, 따라서 남성의 경제활동과 같은 활동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족원으로서 마

땅히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의무였고 경제활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년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가족의 경제적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여성들은 "일하지 않는 여자"를 "팔자 좋은 여자" 또는 "복있는 여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노동을 천시하고 있었고,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의 경제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식될 수 없었다.

나) 가사노동

'50년대 여성의 활동은 경제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여성이라면 모두가 해야했던 일이 가사노동이었다. 집안 일 =여자의 일이라는 성별 역할 인식이 확고했었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집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집안 일은 여성의 몫이었다. '50년대는 가사노동의 기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도와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던 시기와 의식주를 조달하는 일은 많은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⁵⁾, 그 과정의 대부분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하루 세끼 밥을 먹기 위해서는 잠깐 쉴 틈도 없이 하루종일 일해야했고", 여성의 가사노동의 분량은 막대하였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가사노동은 결혼한 여성의 혼자 힘으로 다 하기에는 벅찼었다. 그래서 늘 보조가 필요했고, 가족 안에서 그 보조는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맡아했다. 여자들은 예닐곱의 나이에 들어서면 가사노동의 여러 단계에서 보조로 참여하다가 결혼하면 하루 종일 가사노동을 해야 했다.

가사노동에는 이같은 일상적 노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계절 노동으로 김장을 해야 했고, 많게는 매달 있다시피 하는 제사를 준비해야 했으며, 시부모를 부양하고 일가친척들을 뒷바라지했다. 그러나 자녀양육을 위한 활동은 다른 집안 일에 비해서 비중이 작았다. 먹고살기에 바빴던 시

5) 예를 들면 의복의 경우, 한복을 많이들 입었는데, 더러워진 한복을 빠는 과정은 한복을 뜯어내어, 빨고, 풀먹이고, 다듬고, 다리미질하고, 바느질하는, 여러 부분의 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4) 전남일보, 1959년 5월 9일.

기인지라 자녀양육은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물질적 노동의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교 공부나 특기 개발을 위한 자녀 교육에 열심인 부모들은 소수였다.

전통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던 '50년대 광주 여성들은 가사노동은 물론 비공식 노동과 공식 분야에서의 노동까지 다양하면서도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모든 노동의 동기는 가족이었다. 가족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만 일했으며, 또 가족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일을 했다. '50년대 광주 여성에게 가족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었으며, 동시에 그것을 억제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2. 1960년대-1970년대

1) 광주의 산업화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산업화의 영향으로 광주에서도 '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농업인구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광주시 전체 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에 18.2%에서 1975년에 7.8%로 감소하였고(광주광역시, 1998 : 356-357),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968년에 11,570명에서 1975년에는 21,848명으로 증가하였다(광주광역시, 1998 : 358). 그 결과 광주에서도 노동자 계층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70년대까지의 광주의 산업화의 정도는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었다. 예컨대 1970년의 전국적인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 31.4%, 광공업 16.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52.2%를 차지한 반면 광주·전남은 농림수산업 55.8%, 광공업 9.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34.7%이었다. 광주·전남은 농림수산업이 전국 평균보다 24.4%나 높은 상태인 반면, 광공업 부문은 전국 평균보다 6.9% 낮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은 전국평균보다

17.5% 낮았다(광주광역시, 1998 : 354). 제조업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광주시는 18.9%인데 반해 다른 도시는 30%를 상회한다. 또한 광주시의 경제활동 인구나 취업자의 비율은 전국 시도의 평균이나 서울, 부산, 대구에 비해 낮았다⁶⁾. 제조업이 취약하고 농림어업 부문이 전체 산업의 50%를 넘는 구조는 1975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농림어업의 비율이 40%대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상대적 열세는 여전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의 광주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고, 그 결과 광주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도 다양하지 못했으며 계층분화도 활발하지 못했다. 전문직과 화이트 칼라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타지역에 비해 적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은 단순직과 영세 가내공업에 종사하거나 농사일을 했다.

2) 산업화와 광주 가족

산업화는 가족을 변화시킨다(Shorter, 1976; Stone, 1977; 권희영, 1998; 김경일, 1998). '70년대의 광주가족도 산업화의 영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핵가족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생산과 가족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광주 가족의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광주의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후진적이었으며, 그 속도도

6) 다음의 표를 참조할 것

1974년도 국내 주요 도시의 고용실태
단위 : %

항 목	광 주	전국 시도	서 울	부 산	대 구
경제활동인구/총인구	29.4	33.0	33.1	33.7	34.8
제조업인구/취업인구	18.9	31.7	34.5	37.3	35.6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4년 특별고용 통계조사 보고', 1976. 광주역사, 1998. 357쪽. 재인용.

빠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상대적 후진성으로 인해 산업화가 가져오는 가족변화가 광주 가족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핵가족화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전통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결혼한 장남은 그가 광주에서 사는 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였고, 불가피하여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도 장남과 부모는 한 가족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다. 핵가족화뿐만 아니라 '70년대의 광주의 가족은 가족 및 친족관계에서 가장과 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도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았다. 가족원끼리의 상호작용도 전통적 규범의 지배를 많이 받았다. 집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여야 했다. 대(代)를 중요시하는 태도와 남아선호가 여전히 강했고, 제사와 조상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다.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였고, 일단 결혼하면 여자들은 시집이 자신의 집이었다. 광주의 친족들은 화수회나 문중 행사를 통하여 자주 만나고 친족원의 생활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여성들은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사를 준비하고, 친척을 맞이하고 방문했으며, 철따라 필요한 음식을 장만했다.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광주 여성들은 여전히 부덕을 목표로 삼고 가족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70년대 후반에 들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었던 '가정주부'의 삶은 실제이기보다는 이상이었다. 가정주부의 실현은 생활수준의 향상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현가능하기 때문이다. '70

년대 광주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기는 했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으로, 그 향상은 모든 계층이 실생활에서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못했고 따라서 가정주부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 기초를 갖출 수 없었다. 주택구조의 변화는 연탄 보일러의 도입, 부엌과 수도의 실내 배치,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수세식화 등에 그치고 있었고 그나마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소수의 가족에게만 가능한 변화였다. 근대적 가정주부의 삶이 더 이상 외국 잡지나 등장하는 식의 그림의 떡같은 생활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여성은 소수였다. 새로운 가정주부의 삶은 실제라기보다는 이상이였다. '70년대 광주의 여성들--하층이나 중간층의 모든 여성들에게 가정주부는 성취하고 싶은 삶의 목표였던 것이다. 그리고 가정주부에 대한 열망은 전통적 부덕과 합해지면서 광주 여성들을 가정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였다.

3) 여성의 일과 의식

가) 경제활동

느린 산업화와 직업분화 그리고 광주 여성들의 가족 중심성은 여성들의 활동 무대를 가족 안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70년대의 광주경제의 성장은 가족에서 가난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수준으로 가족원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고 생계를 위해 가능하면 여러 가족원이 일해야 하는 상황도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가난한 여성들은 여전히 일을 해야 했다.

'70년대의 한국 농촌은 공업위주의 산업화로 인해 많은 농촌 인구를 도시로 밀어내고 있었는데, 이들 중의 상당수가 10대 소녀들이었다. 이들 소녀들의 일부는 산업화로 생겨난 제조업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노동수요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따라서 '70년대의 광주 여성은 제조업 부문보다는 오히려 사무직, 서비스직, 판

7) 산업화는 남편=가계부양자, 아내=가정관리자라는 근대관 성역할 분리를 초래한다. 이는 남녀의 역할을 안팎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통적 역할 분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가정관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옛과 다르다. 이에 따라 가정주부가 하는 가사노동의 의미도 종래의 여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천한 육체노동에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일로 바뀌어 그 격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전업' 가정주부가 '70년대 말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매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아 다른 대도시의 여성노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70년대 광주 여성의 수는 적었고, 제조업에서 일하는 경우도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했다⁸⁾.

제조업에서 취업기회를 잡지 못한 여성들은 식모나 버스차장, 매춘업과 같은 비공식적 시장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서비스업에 진출하였다. 그나마 결혼한 여성들은 식모나 차장도 될 수가 없었다. 이들은 비공식 시장에서 일을 했다. 결혼한 빈곤한 여성들은 행상, 샅바느질, 집 한 귀퉁이를 터서 만든 구멍가게 등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50년대만큼은 절박하게 그리고 널리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비공식 시장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7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70년대의 광주 여성들의 임금 노동에의 참여는 활발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광주 경제의 낙후성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낙후된 경제구조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 창출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디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주 가족의 전통성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디게 한 원인이었다. 가족은 광주 여성을 일하게 하는 동인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의 활동을 가정 안으로 국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정에 남아 살림을 하는 여성들의 근검과 절약도 '50년대와 마찬가지로였다. 이들은 여전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기," 또는 "무엇이든지 아끼기"의 '소극적' 방법을 사용하여 가계 경제의 수입을 늘렸다. 여성들은 "살림을 잘 하는 것이 곧 돈버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갔다.

나) 가사노동

'70년대 중반 무렵부터 전기와 수도가 일반화되고 그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김성희, 1996) 등의 가전제품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엌과 화장

실이 실내로 배치되기 시작했고 연탄보일러가 연탄 아궁이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설과 제품의 등장으로 가사노동이 조금씩 기계화되어 갔다. 그러나 낮은 광주의 가계 경제 사정으로는 보통 가정이 그러한 제품들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실제 가사노동을 위한 기계들의 구입은 상층 가족에 국한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이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집안일의 노동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70년대의 광주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힘든 육체노동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 반복되는 일상의 집안일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담당하는 제사와 기타 친인척을 위한 집안 대소사, 김장과 같은 계절노동의 양도 크게 줄지 않았다.

다) 여성의식

서울에서의 '70년대는 노동운동이 점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광주에서도 '70년대 말경에 이르러 노동야학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노동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광주 여성노동자도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70년대 광주 여성노동운동은 일신방직, 전남방직, 로케트전기 등과 같이 대규모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광주 여성노동자들은 대규모 제조업에 서보다는 임시직, 영세한 사업장,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판매직에서 더 많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포함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여성노동자가 노동운동에 소극적이었던 데에는 '70년대 광주의 상황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광주 여성이 노동자가 된 것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었고, 그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받은 대우가 또한 열악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일한다는 것은 "복 없는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노동이란 불행한 삶의 상징이었고, 따라서 "자아실현"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삶으로 진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광주는 부덕을 중심으로

8) '70년대의 제조업의 여성노동자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상례였다. 임종철 외(1980 : 57-61)를 참고할 것.

하는 성별 역할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근대적 가정환경을 꾸려나가는 "가정주부"가 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가정주부"의 삶이 매력적이기는 여성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노동과 여성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투쟁을 하기보다는 "가정주부"의 삶에 진입하는 것도 현실의 고달픔에서 벗어나 자신을 바꾸는 길이였다. 노동이나 여성문제는 나와는 거리가 먼 문제들일 수 있었고, 그렇게 인식하는 여성들은 현장에 있어도 국외자이기 쉽상이었다.

따라서 '70년대의 여성노동운동은 여성운동으로써가 아니라 노동운동으로써 여성의식에 미친 영향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노동운동을 가까이서 보거나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불평등의 문제가 운명적으로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저항해야 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억압과 차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되는 것임을 조금씩 깨달아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70년대 후반에 여성문제에 대한 직접적 관심은 다른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1978년에 결성된 현대문화 연구소의 송백회⁹⁾와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가의 여학생들 또는 극단 '광대'에서 활동하는 여대생들¹⁰⁾, YWCA와 JOC(가톨릭노동청년회)가 그러한 집단들이었다. 이들 단체들은 여성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이론적 학습(송백회, 여대생들)을 시도하거나, 청소년과 매춘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정법률상담소를 만들었으며(YWCA), 여성노동자들을 돕기도 하였고(JOC),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하였다(송백회).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직접적으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했지만 다루는 시각은 여성주의적이지 못했다. 모

두가 여성문제를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또는 복음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었으나 여성을 남성에 대비되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이나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식하여 권익보호를 하고자 했다. 빈민여성이나 창녀문제도 성(性)의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소외되었거나" "고통받는" 여성을 돕는다는 취지가 강해 복음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이렇게 '70년대 말경의 광주에는 그때까지의 여성의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의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였다. 여대생이 주축을 이루는 활동적이며 진보적인 중간계층의 여성들과 노동운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국한되고 있었다. 이들의 경우도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민주화 운동 내지는 노동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달되어 나왔다. 여성문제는 사회 일반의 불평등의 한 부문으로서 인식되고 있었고, 독립적인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지 못했다.

3. 1980년대 초반-1980년대 중반

1) 산업구조

1980년에 광주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 부문 31.2%, 광공업 부문 30.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 38.7%로 '70년대 초반에 비해 농림업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여타의 산업분야가 많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광주광역시, 1998 : 355). 이렇게 농업 외의 산업부문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서비스업과 판매업이 제조업보다는 조금씩 더 높게 증가했다. 이는 광주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가 제조업 중심의 생산도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과 판매업 중심의 "소비도시"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규모에 있어서도 제조업은 '50년대보다는 커졌지만, 이렇다할 대규

9) 송백회는 민주화운동의 구축자 또는 활동가 부인과 직장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단체로, 처음에는 구축자의 육바라지와 구축자가족간의 교류 중심의 활동을 하였으나 점차 여성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이론적 학습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10)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 운동에 동조적이거나 동참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모 기업을 가지지 못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성을 못 벗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변화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 및 사무직의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증가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저학력 미혼여성들로 2·3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면 농업 부문에서 일했거나 집에서 가사 일을 도우며 지냈을 사람들이다. 산업화에 따라 농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사무직으로 여성 노동력이 이동해 가고 있었다.

임금 경제의 증가에 따라 남편은 임금노동자가 되고 아내는 집에 남아 자녀와 남편의 뒷바라지만 하는 근대적 성역할 분업도 차츰 늘어갔다.

2) 광주항쟁과 여성

'80년대 광주는 경제의 시기가 아니라 정치의 시기였다. 1980년 5월의 광주에는 광주 민중항쟁이 발생했고 이후의 광주에서의 삶은 그 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광주항쟁으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 여성의 삶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 여성은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가) 차별의식의 인큐베이터

광주항쟁은 기층민중이 선두가 되어 군사독재에 항거한 극렬한 민중 항쟁이었다. 광주민중항쟁에서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총을 들고 계엄군과 맞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항쟁의 전 과정에 그리고 노점상이나 도시 주변 빈민 지역의 여성들에서부터 중간 계층의 가정주부들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하였다(5월여성연구회, 37-42, 118-230).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을 함락시킴으로 약 10일 간에 걸친 5월 항쟁은 끝이 났다. 그리고 나서 5월 항쟁은 “불순분자의 소행” 내지는 “폭도들의 선동”으로 매도되었고, 5월 항쟁을 계속하는 어떤 종류의 행동도 철저히 금지 당했다. 이후 몇 년 동안 광주는 5월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광주사람들

은 낙망과 불안, 답답한 기분, 우울감, 부채의식 등으로 가라앉았다(5월여성연구회, 1991 : 280). 이 기간 동안에 광주는 정치 문제 외의 모든 문제는 정채된 채로 있었다.

여성들의 광주항쟁에의 참여는 대부분 자연발생적이었고, 참여동기도 계엄군에 대한 저항, 즉 반독재에 있었다. 여성들은 광주항쟁에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또는 노동자로서 참여하였다. 광주민중항쟁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고 항쟁의 전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항쟁의 과정 어디에도 성(性)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 시민권 운동이 여성운동을 발생시킨 서구의 선례들과는 달리 광주의 시민운동은 여성운동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는 항쟁의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과 항쟁이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며 진압된 뒤에도 '80년대 중반을 넘도록 항쟁을 언급조차 하기 어려웠다는 점들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광주 민중항쟁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5월 항쟁을 체험하면서 광주 여성들은 세계관이 변했다. 광주항쟁을 경험한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살아왔고, 교육받아왔고 어떤 의미에선 이 체제가 주는 고리 안에 단단히 묶여있던 나의 삶이 그 며칠 동안 탁 끊어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세계관을 다시 세우지 않고는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홍희운, 80년 당시 송백회 총무, 5월 여성연구회, 1991 : 95 재인용).

그리고 그 세계관의 변화는 자신들의 삶 속에 부조리와 억압이 있고, 인간다운 삶은 그 부조리와 억압에 항거함으로 시작된다는 인식의 변화였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전남대의 ‘여성문제연구학회’는 80년 9월에 학회활동과 학술활동을 시작하면서 학회의 진로를 “여성이 억압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억압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모든 인간이 전인적으로 해방되게 하는 것”(5월 여성 연구회, 1991 : 97)

으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분이기에 힘입어서이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던 YWCA가 1984년에 새 회관 준공을 기화로 여성의 억압에 초점을 맞추며 여성을 위한 활동을 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하며 전개해 나갈 것(5월 여성연구회, 1991 : 100-103)을 분명히 한 것도 광주항쟁의 영향이다. 이렇게 광주민중항쟁은 차별에 대한 항거에 정당성을 제공함으로써 광주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차별과 억압을 발견하고 문제제시하는 의식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 광주항쟁은 폭도들의 반란으로 간주되고 엄격한 군사독재하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 체제에 부정적인 활동은 지하로 들어가거나 잠재된 상태로 때를 기다려야 했다. 광주항쟁의 실천적 영향은 항쟁이 긍정적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80년대 후반에 가서 나타날 수 있었다.

나) 모성의 사회화

5월 항쟁이후 몇 년 지속된 침묵 속에서도 그 침묵을 깨뜨리고 광주를 말하는 소수의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구속자 가족회와 유가족회였다. 광주민중항쟁은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구속자를 만들어냈다. 이들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5월 항쟁의 진상을 밝혀 죽은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구속된 가족들을 위한 변호와 석방을 목표로 때로는 목숨을 건 활동들을 했다. 구속자 가족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많았다. 5월 항쟁을 “폭도나 불량배들”이 일으킨 불법운동으로 규정하여 구속자나 실종자를 위한 활동은 삼엄하게 감시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식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였다. 송백희의 한 회원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머니였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넘나들기 시작하였다. 아

이들 앞에 놓여진 이 세계는 얼마나 험난하고 모순투성이인가!...어머니의 역사에 대한 방기로 잘못된 유산이 지금 내 아이들 앞에 놓여있다.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피흘리며 싸우는 것은 역사를 방기한 나의 죄업인 것을...”(홍희윤, 당시 송백희 총무, 5월 여성 연구회, 1991 : 96 재인용).

모성이 투쟁의 직접적 동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성은 광주 여성의 가족중심주의적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었던 광주가족의 전통성으로 인해 광주여성들은 가족과 자기 자신의 동일시의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성역할 분리에 의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최종 관리하는 것이 어머니의 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이 일상적 활동을 통해 자식의 생명 유지에 가족원 누구보다도 민감했다. 이러한 자식과 가족에 대한 애착과 동일시의 심리는, 5월 항쟁으로 자식의 생명 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니들로 하여금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생명구출에 앞장서게 했다.

초기에는 구속자 가족들의 활동은 주로 구속자와 도피자를 뒷바라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활동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구속자 가족 협의회가 1986년 5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로 탈바꿈하면서 구속자 가족들의 활동은 민주화 운동과 병행하여 갔다. 구속자 가족회의 총무였던 이명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당시[5월 항쟁 당시] 나는 둘째 아이를 낳고 살림재미를 붙여가던 보통여성이었다. ... 나는 남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믿었기에 당당하게 구명운동을 펼쳤다. 산기로 부은 몸을 이끌고 안 다녀본 곳 없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다녔다. 그 후로 나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이들의 아내, 누이, 어머니 역할을 하며 민주화 운동의 투사로 변신했다. 5월 항쟁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인간해방의 몸부림이었다...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여성들도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이러한 고통에 휩싸이지 않도록 부

엇인가 해야한다.”(5월 여성 연구회, 1991 : 95-96 재인용).

계속되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양심선언 등으로 구속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석방된 후에도 감시와 행동제약 또는 재구속 등으로 공통을 당하는 일이 일상화되어버렸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길은 참된 민주화를 앞당기는 것밖에 없다고 깨닫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5월여성연구회, 1991 : 102).

자기 가족과 자식의 일상을 돌보는 것에 국한되었던 모성이 광주항쟁을 계기로 사회화되어졌다. 가족을 위한 에너지가 인간화, 민주화를 위한 에너지로 확대되었고 민주적 사회 구현에 여성의 역할을 푸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여성의식으로서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이 모성은 전통적인 부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통적 가족중심주의와 부덕이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의식과 여성의식을 갖도록 인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광주민중항쟁은 전통적 부덕을 사회화시킴으로 광주 여성의 의식의 지평을 확대시킨 공헌을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광주 여성의 전통적 삶의 방식--부덕과 가족 중심적 삶이 극렬한 정치 투쟁을 겪는 속에서도 계속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의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도 광주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가정과 살림 중심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방식이 극렬한 정치투쟁을 거치면서도 수정되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었다. 이는 민가협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운동 또는 여성운동이 가족과 모성 중심의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운동 안에서도 모성이 계속 수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과 모성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거나 추구할 필요성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현실을 거부하기보다는 포용하는 식의 '부덕'--사회와 연결되기는 했지만--의 전통은 '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4.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1) 산업구조와 경제수준의 향상

광주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및 판매업의 비중은 급증하여 2,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했으며 경제수준도 향상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임금경제가 더욱 확산되고 중간계층의 폭이 넓어져 갔다. '80년대 후반부터 중산층적 삶의 형태가 영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광주 여성의 교육정도도 많이 향상되었다¹¹⁾. 종합적으로 볼 때, '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 초반의 광주는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생활 조건들도 향상되고 있었다.

2) 가정생활의 변화

가) 근대적 가정생활의 확산

'80년대 후반부에 들어 광주에 아파트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90년대에 들어서는 대표적 주거형태로서 빠르게 뿌리를 내려갔다. 주거형태로서의 아파트 보급은 곧 주택구조의 근대화가 일반화를 의미한다. 목욕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실내에 설치되고, 실내에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도구로 연탄이 아니라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급증했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가계 경제의 향상으로 그러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가전제품의 보급과 주거공간의 근대화는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광주에서는 '80년대 후반부 이전까지는 소수의 사람만 소유 가능한 것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수준에 그치고 있었던 근대적 가정설비의 소유가 '80년대 후반부에 들면서 광주의 하층 계급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11) 1990년에는 25세 이상 광주 여성 인구 중, 고졸 31.6%와 대졸 이상 10.0%에서, 1995년에는 고졸 37.6%와 대졸 이상 15.7%로 증가하였다(광주 광역시, 2001).

또한 가계경제의 향상으로 광주가족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가족의 생존 그 자체를 염려하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가족의 생존을 위해 긴박하게 가족원들이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완화되었다. 그 결과 여성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필요성은 격감되었다. 그러나 '80년도 후반부에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여성이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 경제적 필요성이 생존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향상되고 있는 생활수준을 따라잡는 데에 있다는 점이 달랐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중간계층의 삶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월급 봉투가 필요해진 것이다.

한편, 가족의 전통성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결혼 후 부모와 분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었다. 친족관계의 범위와 빈도도 감소하고 있었다. 광주의 가족에서도 '80년대 후반 무렵부터 아동기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제 핵가족화되고 근대화된 집에서 살림과 자녀양육의 단독 책임자가 되어 전문적 가정관리자로서 살아가는 근대적 가정주부의 생활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주의 경제와 산업의 규모가 여전히 소규모였고 중산층의 두께도 아직 충분히 두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수반하는 가족 변화는 부분적이거나 혼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분가를 한 경우에도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은 긴밀하였고, 장남은 언젠가는 다시 합거하여 부모를 모셔야 하는 사람이었다. 가족 내에서 남녀간의 성별역할구분은 여전히였고 사람들은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어했다. 제사나 화수회가 중요한 가족행사인 경우도 많았다. 부부는 연애하여 결혼하였어도 부모와 자녀 앞에서는 애정표현을 자제하여야 했고, 중산층 여성들은 결혼을 위해 취업을 희생했다. 삶의 형식은 급격히 근대화되어가고 있었지만 가정생활의 내용은 그처럼 급격히 변하지 않아 전통적 특성이 가정 곳곳에 남아있었다.

나) '가정주부'의 확산과 좌절

'80년대 후반에 들어 광주 여성의 교육정도가 높

아지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이상을 수료한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높아 가는 여성의 교육 수준을 수용할 정도로 광주의 취업기회가 확장되지는 못했다. '80년대 후반부 여성의 취업기회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증가란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 당시 광주에서 여성이 구할 수 있었던 "괜찮은" 직업은 교사, 간호사 정도의 직종이었는데, 이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취업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80년대 후반에 광주여성의 교육 수준은 향상되고 있었지만 이들이 적합한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때마침 가정주부와 의미가 격상된 가사노동이 여성의 새로운 역할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산층, 고학력의 여성들은 가정주부로 가정에 남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하여 '80년대가 끝나가도록 고학력, 중산층의 광주 여성들은 가족과 살림 중심적 삶을 살았다. 격상된 가사노동과 근대적 주거 조건, 그리고 제한된 취업을 고려하면 이 시기의 광주여성들에게 가정주부의 삶은 반드시 나쁘기 만한 것은 아니었다. 가사노동은 전문가다운 안목과 기술 및 지식을 요구하는 고상한 일이었고, 자녀들의 학교공부는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고학력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자녀와 격상된 가사노동을 하는 데에 썼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자녀 교육에 전념하는 생활이 항상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여성의 가정주부화는 여성의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여성은 이제 가족 안으로 고립되어 갔다. 분리된 가족생활에서 남편과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아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남편과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다¹²⁾. 이와 더불어 '80년대 말 한국사회에는 경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12) 남편과 아내는 활동공간이 달랐으며 가족변화를 수용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부부사이의 관계는 아직도 전통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자연히 부부간의 대화는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 가는 식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웠다.

독립·자율·성취 등이 높이 평가되고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 성취의 세계에서 여성은 소외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자신들의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광주 여성들은 “예전보다는 분명히 편해졌는데도” 또는 “다 갖추어 놓고 살면서도” 가정 안에서 소외를 느꼈다¹³⁾. 근대적 설비를 갖춘 집에서 선망하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가슴은 공허하고 답답했다. 선망이 좌절로 바뀌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좌절과 회의는 그때까지 광주 여성의 정체성의 핵심인 부덕에 대한 회의이기도 하다.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은 없는 전통적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였다. 일부 중산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 중심적인 전통적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가 싹트고 있었고, 가정 밖에서의 활동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3) 여성의 일과 의식

가) 여성의 일

'90년대 초반을 전후로 하여 광주 여성의 취업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통계청 조사(통계청, 1995)에 따르면 광주의 대졸 여성들은 생계유지(6.1%)나 가계보탬(20.1%)보다는 자신의 적성활용을 위해서(53.3%) 일하고자 한다.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처럼 경제활동을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며, 이는 광주 여성들에게서 가정 지향적 삶에서 “자기 찾기”의 삶으로 방향전환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하여 볼 때 '90년을 전후로 한 시기는 광주 여성에게 하나의 전환점이다. 우선 양적으로 볼 때 '80년대 후반 내지는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하여 광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임금근로자로서의 여성 취업이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율은 감소하여 여성의 비공식 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이 대폭 감소하였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늘어났고 결혼, 출산 이후에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비율도 높아져갔다. 남성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그 격차의 폭이 '90년을 전후로 하여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도 광주 여성들은 여전히 서비스와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고, 그 비율이 타 지역 여성들보다 높아 광주 여성의 3차 산업에의 집중이 보다 심하다. 여성들이 집중되어있는 3차 산업은 단순하고 비전문적인 업종들이어서,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광주 여성의 취업 특성--단순, 불안정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 초반의 광주의 중산층 여성이 모두 직업을 찾아 나선 것은 아니다. 그들 중의 일부는 어머니 역할을 더욱 더 극성으로 하는, 이른바 “극성 어머니”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극성 어머니는 자녀의 학과 공부와 적성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녀에게 일종의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른 새벽의 도시락 준비에서 시작하여 아이를 학교로 학원으로 실어 나르며, 자녀의 하루일과를 짜고, 유능한 과외 선생님을 찾아내 아이를 맡기는 등등의 활동에 시간을 쏟는다. 자녀 교육은 잘되면 자식의 성공을 가져오고 그것은 또한 여성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며, 현재의 생활에서는 자신의 주도하에서 경영해나가는 기업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자녀교육에의 개입은 여성이 성취감과 자율성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자식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성 어머니는 전통적 모성이 현대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가정 밖에서의 활동을 찾던 광주 여성들이 선택한 또 다른 방안은 어머니로서 살되 고립된 가족에서 벗어나 사회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 즉 '시민 어머니'로서 사는 것이었다. 이는 광주 여성의 전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가정주부의 말에서 잘 설명된다.

13) '90년대 초반 중앙 일간지는 물론 지역일간지들도 가정주부의 허탈감, 상실감, 우울증 등에 관한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1991년 5월의 광주일보 가정난을 참조할 것.

“취업만이 대안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하고 노는 것, 그런 것이 나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사는 것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집 바깥의 활동도 하고 싶어요. 시민으로 활동하는 것,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42세 가정주부).

가정 지향적인 삶을 살되 가정에만 고립되는 생활을 탈피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었다.

나) 여성의식

1990년을 전후로 하여 광주에는 여성문제를 여성적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여러 개의 여성단체가 탄생했다. 1988년에는 '전남지역 여대생대표자 협의회'(남여협)와 '광주전남여성회'(여성회), 1990년에는 '여성노동자회'와 '광주 여성의 전화'가 1991년 '광주전남 여성문제 특별위원회'(여특위)와 같은 단체들이 발족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대학가의 여대생(남여협), 일하는 여성들(여성회), 여성노동자(여성노동자회), 가정주부(여성의 전화) 등, 여러 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식의 교육, 여성권익, 여성운동의 대중화 등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다. '90년대 초반에는 광주 지역의 대학에서 처음으로 여성학이 개설되었고, 여성문제만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서클들도 생겨났다.

이렇게 여성문제를 다루는 독립적 조직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함에 따라 비로소 여성운동이 민주화 운동의 부문 운동이 아니라 독립된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1990년을 전후로 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공적영역에서 성차별이 문제로 제기되어졌으며, 여성운동의 대중화의 단초가 보였다.

그러나 이들 여성단체들은 일반 대중 여성들을 여성운동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남여협'이나 '광주전남여성회' 또는 '여

성노동자회' 등은 소수의 지도자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의도한 바와는 달리 일반 여대생, 일반 노동자, 일반여성들의 관심을 끌어들이지 못했다(5월 여성 연구회, 1991 : 106-109). 일반여성들의 관심을 끌어들이지 못한 데에는 광주의 특수성이 작용한 바 크다. 광주는 5월 항쟁을 거쳤고 그 후에도 민주화 투쟁 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다. 사회변혁 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 운동을 의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전남 여성회'처럼 여성단체이면서도 활동의 비중이 독자적인 여성운동 사업보다는 민주화 운동과의 연대투쟁활동에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화 운동과의 짝은 연대활동으로 인해 자체 기반을 다지는 일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5월여성연구회, 1991 : 107) 여성회는 '9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운동이 수그러들자 정체되어 갔다. 민주화운동과의 연대가 가져오는 이 같은 한계는 민가협의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민가협은 5월 항쟁으로부터 태동했고 5월 항쟁으로 인한 민주화 운동과 밀접한 연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적 가치가 실현되면서 민주화 운동이 축소되어 가자 민가협의 활동도 축소되었다. '90년을 전후로한 광주의 여성단체들의 대부분은 독립적 여성운동의 형식은 갖추어졌지만 내용에서는 아직 대중적 여성운동의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광주항쟁은 여성운동을 돕기도 하면서 제한하기도 했다. '80년대 후반의 여성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광주민중항쟁의 가치를 여성에게 적용시킨 결과라는 점에서 광주 항쟁은 광주 여성운동을 도왔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은 광주의 여성운동이 민주화운동과의 연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 독립적 여성운동의 기반을 잠식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1990년을 전후로 한 여성운동은 고학력 중산층 여성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전화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모두 고졸 이상이었고 50% 이상이 대졸이었으며, 생활이 어렵지 않은 중산층 가정주부들이었다. 이들 가정주부들은 이 시기에 확산되고 있었던 근대적 가정주

부의 삶에 희의를 느끼고 있었거나 늘어난 여가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고 싶은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남여협과 광주전남 여성회는 여대생이거나 학창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고학력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체들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중산층 여성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회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우선적 관심은 여성보다는 노동이었다. 이같은 고학력 중산층 여성 중심의 운동은 여성운동이 “특별한 사람들”의 운동으로 여겨져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90년대 초반의 광주 여성단체들이 노정하고 있었던 이러한 특징들은 진보적 소수 여성과 대중적 다수 여성 사이의 골(gap)을 의미했다. 광주의 일부 여성들은 5월 항쟁과 그 후의 투쟁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어갔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의 민주화 운동과 연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때로 조직과는 별개로 이념과 활동에서는 여성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구분하지 않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운동의 목표로 여성의 평생노동권 또는 가부장제의 타도를 추구했다. 이들에게 가정은 여성 발전에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보통의 여성들은 그때까지도 선택을 하자면 가정중심적 생활을 선호하였다. 보통 여성들의 이러한 생활태도는 진보적 소수에게 교육의 대상이었다. 반면 보통의 여성들은 진보적 소수의 목표는 가정을 파괴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협적이거나 자기들과는 다른 세계의 말로 들렸다. 고학력 중산층 여성 중심의 여성운동은 “생활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행위로 여겨졌다. 그리고 ‘90년 초반의 광주여성운동 대부분 이 둘 사이를 이어줄 만한 역할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가족으로부터 놓여나서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는 방치된 채로 있었다.

5. 1990년대 중반-1990년대 말

1) 산업구조와 경제수준

‘90년대 중반에 이르자 광주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10% 이내로 떨어지고 2·3차 산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되어 가되, 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3차 산업이 훨씬 빠르게 성장해 가는 쪽으로 변화해 갔다(통계청, 1998). 1996년에 자동차가 100명당 17.63대(내무부, 1996)가 보급되어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족들이 급증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수준도 향상되었다. 끼니를 걱정하는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중산층의 두께가 넓어져 갔다. 1998년의 통계에 의하면(통계청, 1998) 광주 여성의 67.4%가 경제생활에 만족 또는 보통이라고 대답하여 광주 여성들은 이같은 경제생활의 변화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가 광주 사람들의 생활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여가의 의미는 여성들의 생활에서 더욱 컸다. 출산율의 저하, 핵가족화,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인한 가사노동의 기계화 등의 혜택으로 ‘90년대 광주 여성들은 집안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하루해를 넘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90년대 이전의 여가는 소수의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던 것에 비해, ‘90년대에는 다수에게 가능하게 되었다. 여가는 ‘90년대의 여성의 삶이 그 이전의 가정생활과 구별되는 변화 중의 하나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여성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광주에는 소비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서울에 본점을 둔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의 광주 진출은 광주의 소비문화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유치를 위하여 치열한 상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백화점들은 무차별적인 광고, 무이자 할부판매, 잦은 경품 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공략했고, 이 과정에서

광주의 소비는 그 규모가 계속 커져 갔다. 과거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백화점 물건은 비싸서 안 사던" 사람들도 백화점 구매를 하게 되었고, 쇼핑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2) 여성의 가정생활

'90년대 중반 무렵의 광주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가족 변화, 즉 자녀수의 감소, 핵가족화¹⁴⁾, 자녀수의 감소로 인한 단축된 자녀 양육기간 등의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반화되었다. 1995년 말 광주시의 아파트 보급률이 59.6%에 달해 6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아파트 보급율을 보이고 있는데(내무부, 1996), 이는 아파트가 광주의 대표적 주거 형태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파트의 보급은 근대적 주거 환경이 하층에까지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생활 환경에서의 근대적 가정생활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에게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가정생활의 외적 환경만 변한 것이 아니라 '90년대 중반쯤이면 가정생활의 내용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1990년대 초반 무렵부터 경춘 뛰기 시작한 광주의 이혼율은 그 뒤에도 계속 증가하였고, 광주 여성의 41.9%가 이혼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통계청, 1998), 29.5%가 결혼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서울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광주의 가족도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중반 무렵에는 가정 외의 영역에서 자기만의 생활을 가지고 싶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1995년에는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을 하고싶다는 여성이 27.7%이었었는데, 1998년에는 34.0%로 증가(통계청, 1995, 1998)하였다. 가족만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표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가정 외의 일을 찾기 시작한 여성들이 '90년대 초반보다

훨씬 많아졌다. 여기서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을 하고싶다는 것은 가정보다 취업을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을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1998년의 한 조사에서(통계청, 1998) 결혼에 찬성하는 여성이 69.5%로, 광주 여성의 2/3가 결혼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집에만 있는 것은 답답해요. 내 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가정을 지키면서 하고 싶어요. 자기 생활을 하되 가정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괜찮은 파트 타임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괜찮은 일이라도 하루 종일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은 내키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40대 초반의 어느 가정주부의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광주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를 원한다. 가정과 살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 부덕이 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중반의 광주 여성들의 다수는 결혼과 가족을 중요한 것으로 보며, 가정 밖으로 나가 취업을 하기를 원하지만 가정은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싶어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 광주 가족의 전통성은 한층 더 약해졌다. 부모 부양 의식이 약해지고 있으며, 친족 관계가 부계 일변도에서 벗어나고 있고,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식도 약해지고 있다.

'90년대 초반보다 가족의 전통성이 더욱 약화되어 가정생활의 내용까지도 변하고 있었지만 전통가족이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 분담 정도의 경우,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사는 부인이 전담하거나 주로 하는 사람들이 87%인 반면, 공평하게 분담은 8.5%, 주로 남편은 2.7%에 불과하여 집안일=여성의 일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가족의 전통성은 남자에게 더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평소가사분담에 대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평하게 분담이 50%를 넘는다. 그러나 맞벌이 가족의 경우,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에 남자는 53.3%가 찬성한 반면 여자는 그보다 58.3%(광주광역시, 2000 : 125)에 이르고 있어서 남자들은 여자보다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모 부양에 있어서도 여자들

14) 직계가족은 1990년의 7.6%에서 1995년 7.0%로 감소한 반면 핵가족은 67.1%에서 68.8%로 증가했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2, 1997).

(18.1%)보다 남자들(23.2%)이 더 장남의 부모 부양책임을 지지하여(광주광역시, 2000 : 119) 전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가족 변화는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른 속도로 진행되어 남성의 가족은 전통적 속성이 강하다.

3) 여성의 일과 의식

'90년대에 들어서 여성의 경제 활동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 48.6%이던 것이 1997년에 50.3%로 증가하였으나 IMF를 겪은 1998년에는 47.2%로 감소하였다. '90년대 중반부터의 광주 여성의 취업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결혼과 육아와 상관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결혼과 육아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난 경우에도 직장에 복귀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둘째, 교육정도에 있어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이르면 대졸 미혼은 80% 이상이 대졸 기혼은 55%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다. 셋째, 무급 가족종사자는 줄고 임금노동자는 많은 증가를 하여 이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비공식 부문이 아닌 공식부문의 유급활동이 되어가고 있다. 넷째, 여성이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임시직과 시간제 노동에 많이 종사하는 경향이 높다. 임시직 또는 시간제로 나타나는 여성 취업의 불안정성은 '90년대에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90년대의 임시직 또는 시간제의 증가는 여성의 임금 노동자화와 함께 일어남으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여성이 쉽게 해고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다섯째,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광주 여성의 제조업 부문의 취업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폭 증가하여 1997년에는 여성취업자의 83.5%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지만 광주의 경우 같은 분야의 전국 여성의 평균치(68.6%)보다 훨씬 높아 광주 여성들의 취업이 한층 더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 여성은 관리직 및 전문직의 진출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 서비스, 판매직, 사무직의 진출은 더 높다. 광주 여성의 취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가 3차 산업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광주 여성의 생활에서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 소비활동이다.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는 일부 상층 여성들만의 전유물에서 떠나 보통 여성들에게도 가능하게 되었다. 때로는 눈요기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제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광주 여성들은 바쁘게 백화점과 전문매장을 들락거렸고 '쇼핑'이 광주 여성들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소비활동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정만이 삶의 전부 아니라고 생각한 여성들은 자신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외모 가꾸기가 그 한 예인데, 여성들은 외모 가꾸기를 가정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내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바뀌어진 외모로 "당당해지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의 광주 여성에게 소비는 가정만이 삶의 전부인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를 추구해 가는 방법이기도 했다.

여성들이 소비에만 에너지를 쏟은 것은 아니다. '90년대 중반의 광주 여성들은 "무엇인가 배우고 싶은" 욕구도 강했다. 이 무렵부터 생겨난 백화점 문화 센터가 그러한 욕구 충족의 선두 주자 역할을 했고, 뒤이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원들이 속속 생겨났다. 주부들은 이 곳에 등록하여 퀵트나 도자기를 만들며, 수채화를 그리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며 "자아를 실현"하고자 했다.

'9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광주민중항쟁이 광주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역사로 자리잡아 갔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가고 광주 사람들은 광주 항쟁을 생각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 민중항쟁이 광주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 동인이 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광주 항쟁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던 광주 여성 단체들이 활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광주 여성단체, 특히 진보적 입장을 취한 여성 단체들의 상당수가 광주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과 깊은 연계 위에서 활동을 해 왔는데,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식어감에 따라 이제 그 지향점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90년을 전후로 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던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가거나 와해되어 갔다.

가정 밖의 활동에 대한 광주 여성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의 광주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미진했다. 가정 중심적 삶에서 방향을 바꾸고 싶어하는 광주 여성의 욕구가 집단적 차원으로 흡수되어 가지 못한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한국 전쟁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약 50년 동안 광주 여성의 일과 가족 그리고 여성의식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인 1950년대의 기간에, 광주 여성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가정 안과 밖에서 강인한 생활력을 발휘하여 가정경제를 유지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60년대-'70년대에는 가정 안에서는 전통적 여성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정 밖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말단 직업인으로 살았으며, '80년대 초반-'80년대 중반에는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사회의식과 여성의식을 키워갔고, 이러한 삶의 역사가 발판이 되어 '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는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과 여성의식이 형성되어 갔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에는 가정만이 아닌 스스로의 독자적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과거 50년 동안의 광주 여성의 역사는 광주라는 지역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몇 가지 차별적 성향을 보여왔다. 첫 번째 특성은 광주 경제의 상대적 낙후성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광주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진입 속도가 느렸다. 또, 근대화가 상대적

으로 느리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가족의 전통성이 오래 유지되어 광주 여성들은 가정 중심성이 높은 편이다. 광주 여성운동은 광주민중 항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광주항쟁으로부터 억압과 차별에 항거하는 여성의식이 고취되었다는 긍정적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광주항쟁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속적인 독자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부정적 영향이 되겠다.

이제, 21세기 초입에서 광주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정 외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 가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이 삶의 전부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하다. 가정 외의 영역에서 자신을 구축해가고자 하는 광주 여성들의 이러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광주 여성의 삶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통--모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서구유럽 또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여성운동은 대체로 모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어머니로서의 삶보다는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삶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모성이 여성 삶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과 평화가 21세기의 중요한 문제가 됨에 따라 보살핌·친밀감·배려와 같은 모성의 특성이 하나의 대안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고려할 때, 광주 여성의 가정성을 여성발전에 부정적인 것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모성과 가정성의 전통을 버리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건강한 여성의식으로 승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고 문헌

- 고황경, 이만갑, 이효재, 이해영(1963). 한국 농촌가족의 연구.
권희영(1998). 1920-19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사회와 역사*, 54, 43-76.

- 김경일(1998). 한국 근대 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과 근대. **사회와 역사**, 54, 11-42
- 김성희(1996). 가정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미경(1997) 광주 전남 여성사. 광주 시청.
- 5월여성 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서울 : 민중사.
- 임종철, 배무기(1980). 한국의 노동경제.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조혜정(1988). 한국의 남성과 여성.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최봉영(1993).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 느티나무.
- 최재석(1967). 한국가족연구. 서울 : 민중서관
- 광주광역시 시사 편찬 위원회(1998). 광주역사
- 광주광역시(2000). 광주여성 통계.
- 광주광역시(2001). 광주 여성발전사.
- 내무부(1996). 한국 도시 연감.
- 전남일보
- 광주일보
- 통계청(1995, 1998). 사회통계조사.
- 통계청(1992, 1997).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한국은행 통계월보(1967)
- Beneria, Lourdes (1978). "Reproduction, production,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Unpublished manuscript, Geneva.
- Epstein, Barbara Leslie (1981). *The Politics of Domesticity*. Middletown,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 Oppenheimer, Valerie K. (1970). *The femal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Estpe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Pub.
- Secombe, Wally (1975). "Domestic labor : reply to critiks." *New Left Review* 94 : 85-96.
- Shorter, E. (1976).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 Sokoloff, Natalie J. (1980). *Between money and love: the dialectics of women's home and market work*. New York : Praeger.
- Stone, L. (1977).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 Harper & Row.
- Tilly, Louise A. & Joan W. Scott (1978). *Women, work, and famil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Zaretsky, Eli (1976). *Capitalism, the family, and personal life*. N.Y : Harper & Row.